

파키스탄의 메가와트 논쟁

1. 파키스탄 개황

파키스탄은 수도를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 두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80만4000km², 인구 1억1580만명이다. 종교는 이슬람교(97%), 언어는 우르두(Urdu)어를 국어로,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으며, 정치체제는 공화제로서 정식 국호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다. 전기사업자는 파키스탄 수리·전력개발청(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 : WAPDA)과 사영기업체인 카라치 전력회사(Karachi Electric Supply Corporation Ltd. : KESC) 그리고 소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 PAE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설비 시설용량은 1992년도 현재 8,934MW이며 개략적으로 화력 66%, 수력 33% 그리고 1%가 원자력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력계통은 송전선로 500kV, 220kV, 132kV, 66kV 그리고 1차 배전선로 33kV, 11kV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압배전방식은 400/230V 3상 4선식이며 주파수는 50Hz이다.

수력발전의 포장수력은 30,000MW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10% 수준밖에 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형 댐 건설에 의한 수력발전계획을 수립

하고는 있으나 물의 분배문제와 주민이주 등에 관련된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프로젝트 수행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어촌인구의 4분의 3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전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약 25,000개 정도의 마을 또는 정착촌은 경제적으로 전국연계 전력계통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1991년도 국민총생산(GNP)은 463억2000만달러로 1인당 GNP는 400달러 수준이다.

1993년 10월 6일의 하원 총선거의 결과를 이어 받아 10월 19일에 수상의 지명선거가 있었던 바 하원의원 총수 205명 중에서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 PPP)의 베나질 부토(Benazir Bhutto) 총재가 121표를 획득하여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수상을 크게 앞질러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1990년 8월에 칸(Khan)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상직을 해임당한 이래 실로 3년2개월만에 부토 여사가 수상의 자리에 되돌아온 것이다.

또한 1993년 11월 13일에 행해진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도 부토 수상이 지지하는 파루크 레가리(Farooq Leghari) 후보가 274 : 168로 승리하여

제 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신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파탄직전의 국가재정의 재건인 바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의 대상이라 하겠다.

2. WAPDA의 민영화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전력난 문제는 그동안 절룩거리기 일쑤였으나 이제 빈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최근의 우기때 불어닥친 폭우로 빈약하게 시공된 송전선로가 물이 넘치고 있는 가로와 시장바닥을 덮침으로써 17명의 생명을 제각기 다른 갑작 사고로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전력사업의 민영화가 부족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비로 인한 사고를 막지 못하는 수준의 이 나라 전력산업의 기술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 국영기업체인 WAPDA를 민영화하는 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제 발전부문이 민간회사로 넘어가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7개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것이 모두 준공되면 현재의 발전시설용량의 부족분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게 된다.

3. 발전소 프로젝트의 범람

이미 승인된 7개의 발전소 프로젝트 이외에 추가적인 250개의 민간발전소 건설계획이 정부당국에 제출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외국의 재정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토 수상은 경제문제 특별보좌관인 샤히드 하산 칸(Shahid Hassan Khan)씨는 “반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즐거운 비명을

● 승인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사 업 자	설비용량	투자금액	비 고
Hub Power	1,200MW	16억달러	시공중
Gulzar Ahmed	800MW	8억달러	계획중
Fauji Foundation	350MW	5억달러	“
Hawkins Energy	585MW	6.5억달러	“
Kohinoor Group	120MW	1.1억달러	“
AES Corp./Germany	350MW	5.6억달러	“
Power Bridge	200MW		“
Sceptre Group/Fauji Foundation	145MW		“

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계획서의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는 전연 경험이 없는 토지소유주, 장사꾼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출한 것들이다. 어떤 외국은행가는 “250개 프로젝트 중에서 12개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4. 메가와트 논쟁

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이 이제 이 나라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발전소의 용량인 메가와트에 대해서 떠벌리기도 한다. 어떤 저명한 지방 정치인은 “제한송전에 진절머리가 난 짐사람이 우리 지역에 발전소를 하나 지어달라고 욕박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계 인사는 “당신네 집안은 200년간이나 대대로 망고를 기르기는 하였지만 전기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빈정거리기도 한다.

심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파키스탄의 전력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하여 2억3천만달러를 대여하였다. 이 차관은 이슬라마바드로 하여금 발전소건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전력규제기구를 설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카라

치 서쪽 약 60킬로미터에 위치한 거대한 허브(Hub)발전소 하나를 위하여 추가로 2억4천만달러를 공여하였다.

세계은행의 사기업 담당기구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 IFC)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년도에 민간 전력프로젝트를 위하여 2억5천만달러를 배정하였다. IFC의 지역담당 이사인 안드레 호바귀미안(Andre Hovaguimian)씨는 “우리는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력사업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5. 첨두수요와 외자유치

전력사업의 민영화가 전력위기에 때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전력의 첨두수요가 공급능력을 이미 21%나 초과하고 있으며, 전력소비는 매년 12%씩 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하고 극단적으로 비능률적인 WAPDA는 발전설비용량 890만 kW로서는 부족분을 매꿀 수가 없으며, 정부는 WAPDA가 민영화됨으로써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화의 첫단계로 펀잡(Punjab) 파이살라바드(Faisalabad)에 있는 2개의 화력발전소와 배전계통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정책의 근본 취지는 성장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민간 프로젝트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에 추가하여 현재 고려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카라치의 바지 탐재 발전소의 추가와 타로(Thar), 신드(Sindh)의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석탄발전소에 대하여는 홍콩의 호프웰 홀딩(Hopewell Holdings)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파루크 레가리 대통령은 최근 자금획득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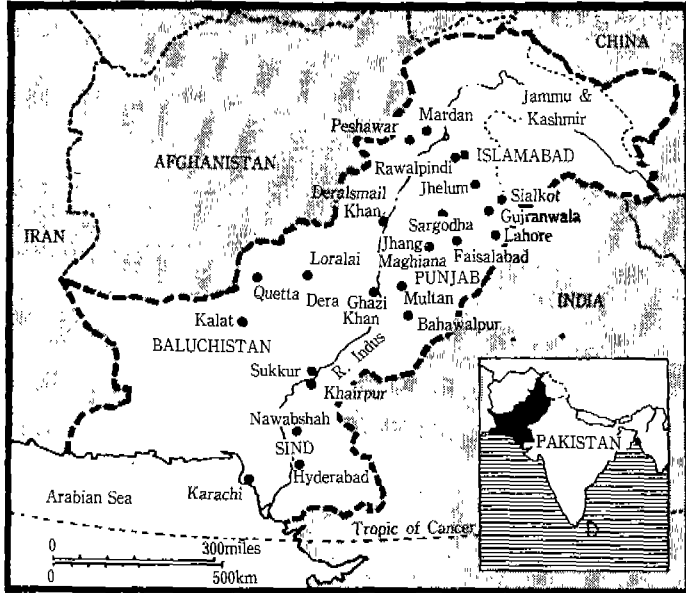
미국여행에서 귀국한 후 “외국투자자들이 파키스탄에 와서 투자하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1년 이내쯤 해서 에너지 부문에만 약 30억달러 정도가 투자될 것이다. 이것은 1947년 이후의 누계 투자액보다 이 1년간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1994년 3월말에 끝나는 9개월간의 파키스탄에 대한 직접 외국투자는 정확히 1억3100만달러이었다. 동일 기간내의 증권매입 등에 의한 간접투자는 근 4배로 증가하여 2억8600만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단지 1개의 프로젝트만이—허브 전력회사가 주도하는—이제까지 외국자금 공여확인을 받은 실정이다. 더 많은 투자가 발전소에 적정한 수송 연계수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막대한 연료공급의 대부분이 유훈하역에 충분한 터미널 공간을 갖지 못한 카라치항으로부터 수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항구에는 영국통치 시절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은 황폐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6. 투자 수익률과 정치

이와 같은 문제 외에 생산되는 전기의 가격구조와 정부의 역할도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나와즈 샤리프 정부가 1992년에 전력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였을 때 수익률 18%를 제시하였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수익률 값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배척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기생산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한 복잡한 전기요금표는 정부로 하여금 회사의 급료, 외국차관 내역 및 유지보수 비용과 건설하려는 발전소 형식 등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간섭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4년 3월에 부토 정부의 에너지 특별 태스크 포스는 킬로와트아워 당 전력량에 대한 일률적인 대량거래 요금을 미화 6.5센트로 결론지었으며, 이 금액은 22~23%의 투자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산업계 인사들은 그 후 정부가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하여 반대의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요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료적인 간섭이 예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선구자적인 산업계 인사는 “정부는 전기에 대한 적정한 요금만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사항들 즉 발전소 시방, 지급되는 급료수준 등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반대의 정책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들도 현재까지 정부정책에 큰 변화는 발견할 수 없으며,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정치적인 문제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거대 산업체 그룹들은 현재 야당의 지도자가 되어있으며 부토 수상의 정적인 사리프와 가깝다(사리프씨에 대하여는 부패사건에 대한 고발로 3건의 형사사건이 계류중에 있다). 까다로운 행정 관료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요금과 규정을 확립해 나가면서 사리프씨와 가까운 산업체들의 이 분야에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인지는 모르는 일이다.

- (자료) 1. EIU Country Profile Report : PAKISTAN, 1993/94
 2. WEC Report 1992 : International Energy Data, 1992.12
 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8.4